2자구도를 품은 3자구도

(롬12:3~13)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2자구도를 품은 3자구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2자 구도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3이라는 숫자와 뚜렷하게 비교되도록 하기 위해서 양자구도라는 말 대신 한번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3자구도'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지난번 대선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 3자구도로 대선의 구도가 형성되었었던 적이 있었죠.
박 근혜 씨, 문 재인, 안 철수 후보, 이렇게 3자구도로 짜여 졌다가 나중에 문 재인 후보와 안 철수 후보가 야권단일화를 하면서 양자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3자구도였다가 한 명이 후보에서 없어지고 양자구도로 바뀌게 되면서, 박 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를 가만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부대끼며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3자구도가 양자구도로 되면서 한 명이 탈락되는 게 아니라, 양자구도가 3자구도 안에서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자로 짜여 진 구도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그 속에 양자구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3자구도 안에서 양자구도가 또한 유지되는 이 모양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면, 또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모

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요? 양자구도를 품은 3자구도의 형태, 이게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얼른 보면, 마치 무슨 교회론에 관한 언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여전히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오해의 가능성은 은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역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다음 부분에서는 일반 사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언급하느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살 때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삶의 현장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이 있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부대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에서, 로마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첫 번째 삶의 현장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일반 사회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 양자구도를 품은 삼자구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믿음이란 것은, 믿음을 갖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양자구도의 확립입니다.
내가 마음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양자구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때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 결과로 주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의식하고 있으라는 얘기에요.
'네가 마음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지 않는 한 네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몸을 하나님께서 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쓰게 될 것이라는 얘기에요.
이 말을 또 달리 표현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다' 이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는 지금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양자구도 안에서 내 마음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 상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양자구도를 유지한 채로 삼자구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자구도라는 게 뭡니까?
나와 하나님의 양자구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삶의 현장에 처하게 되면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라는 이 삼자구도 안에서 언제나 삶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물, 아니면 일,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항상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삼자구도를 이루게 되는데, 먼저 양자구도를 깨뜨리지 말고 유지하면서 삼자구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번 대선 때처럼 삼자구도인 상태에서 양자구조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인이 신앙인 되기를 그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본문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분수,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의미가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 또 믿음의 분수,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양자구도를 깨뜨리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왜 그런가를 점점 더 깊이 명확하게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이 양자구도와 삼자구도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에덴에서부터입니다.
아담에게서 일어난 일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십니다, 아담은 태어나서 처음 만난 상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양자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와를 지으셨지만 하와 역시도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처음 의식을 깨고 만난 상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모두가 각각 하나님과 양자구도를 먼저 이룬 상태로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나님이 양자구도를 이루고 있으면서 하와라고 하는 제삼자를 만나서 삼자구도가 형성이 되고, 하와도 마찬가지로 아담을 만나면서 삼자구도로 형성이 되는데, 여기

서 또 다른 하나의 삼자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와와 하나님이 양자구도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아담이 없는 사이에 사탄이 등장하면서 하와의 삼자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때 하와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사탄과 양자구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외시킨다는 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견, 하나님이 하와에게 원하시는 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탄과 하와의 양자구도로 바뀌어버립니다, 마치 대선 때 삼자구도가 양자구도로 바뀐 것처럼.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과 양자구도를 이루고 있을 때 하와가 아담 앞에 나타나서 삼자구도가 되는데, 그 하와는 어떤가 하면 사탄과 양자구도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하와와 삼자구도에서 아담도 역시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와 양자구도를 이루게 되면서 타락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담이 분수를 넘은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얘기에요.
우리의 삶에 갖고 와서 경각심을 일깨우라는 얘깁니다.
아담이 자기의 분수를 넘어선 겁니다, 아담의 분수가 무엇입니까?
신분이 갖고 있는 한계에요, 아담의 신분은 하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분수는 하나님 앞에서 갖는 신분의 한계 안에 머물러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신분의 한계에 머물러있어야 되는데, 하와를 만나면서 남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짐으로써 타락이 일어난 것이라는 얘깁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을 이해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끝까지 유지하라는 얘깁니다, 어디서? 삼자구도 안에서.
다른 교인들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서 이걸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들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지체가 있다고 말씀하신 뒤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섬기는 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스리는 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보게 되면서 삼자구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은사를 양자구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제삼자를 바라보면서 삼자구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는 은사를 주신 것을 망각하고 '나도 저렇게 다스리는 은사를 받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맨날 섬기기만 하는 것이냐? 누구는 섬기기만 하고 누구는 다스리는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뭐냐? 나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보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상승을 꿈꾸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섬기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양자구도로 들어가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신앙은 그 즉시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양자구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만 충실 하라는 거예요.
삼자구도로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부족하다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든지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양자구도를 깨버리고 사람과의 양자구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믿음의 분량을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믿음 안에서의 분수를 넘어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므리바의 물에 대한 기사를 잘 보면 우리가 이 경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를, '왜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전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는데, 왜 출애굽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
아니? 믿지 아니하다니요, 믿었으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쳤지요.
믿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반석을 치면서 '물아, 나와라!'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므리바의 물 사건 때문에.

그러면 무얼 잘못한 겁니까? 왜 믿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양자구도를 형성했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다는 게 맞아요, 패역한 족속들이고 목이 곧은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그렇게 많은 기적과 광야에서의 만나, 수없이 많은 기적으로 먹여 살리고 있어도 또 못 믿는 거예요, 조금만 목이 마르면 불평을 하는 겁니다.
패역한 게 맞아요,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삼자구도에서 취해야 될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보고 거기에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든지 순종하든지 상관없이 모세가 취해야 될 행동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삼자구도로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양자구도를 이루었던 그 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심장을 주는 일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할 때도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도 모세는 계속해서 마음의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마음심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가지고 자기 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화가 나서 '패역한 백성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순간에 믿음이 끝났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네가 화를 내고 있는 동안에 너의 믿음은 끝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섭죠?

이 말씀의 경우를 그대로 주님께서 재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같은 사람들의 꼴을 보니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건 즉사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그 참담한 거짓된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지실 때 아버지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패역한 선민들의 참담한 신앙상태에 앞에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유다라고 하는 선민들을 포함한 삼자구도 안에서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양자구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갖고 와 적용해보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지금 양자구도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자식을 보는 겁니다, 자식과 삼자구도를 이뤘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의 분수를 지키려면,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이기 전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식의 어떠함을 보고 반응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진 양자구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의 마음에 안 드는 모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자식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의 행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하나님과 양자구도를 이루고 하나님께 마음심장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 사업과의 관계에 삼자구도로 들어갑니다.
이때 사업의 상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상태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있는 양자구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사장입네 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책임져야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지!' 웃기는 일이라 이겁니다.
내가 뭔데 책임을 져요?
내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못하는 사람이 누굴 책임진다는 얘깁니까?
이게 분수를 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장이기 전에, 사장이라는 자리와 삼자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분에서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이 뭡니까?
내 자식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신분에 맞는 일을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자꾸.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양자구도를 사람들과의 삼자구도 안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에서 사는 것 기가 막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열손가락에 가락지 끼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껴안고 연합해서 삼자구도 안으로 영입되어지는 모든 제삼자들에 대해 죽게 해주시고, 이 삼자구도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양자구도로만 유지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